

「科學」이라는 용어 최초로 사용한

일본인 西周(1829~1897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자)

‘과학’(科學)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뭐로 보나 과학자는 아니었다.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언스(science, 더 정확하게는 natural science)라는 말을 그는 ‘科學’이라는 한자 용어로 처음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의 이름 서주(西周: 니시 아마네·1829~1897년)는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특히 철학자로 일본 역사에 우뚝한 인물로 남아 있다.

1874년(明治 7) 서주는 「명류잡지(明六雜誌)」에 연재하던 자신의 ‘지설(知說)’이란 글에서 “소위 과학. . .”이라면서 처음으로 이 말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것도 이 글에서는 단 한번 사용한 단어였다고 한다. 그 뜻도 ‘전문화되는 각 分科의 學’이란 정도의 뜻으로 만들어 썼던 단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그의 단어 ‘과학’은 그 후 서주 자신도 사용을 계속 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과학’이란 말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는 여러 해 전 베트남(월남: 越南)에 가서 처음으로 실감한 일이 있다. 나는 하노이대학에서 한국 역사에 관한 강연을 한 차례 할 일이 있어서 월남에 갔었는데, 1994년 12월의 일이다. 처음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내 나

름의 호기심이 발동한 것은 당연한 일 이었을 것이다. 과학사를 공부하는 나로서는 당연히 거기에는 과학사 하는 학자는 누구이며,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 동안 외국학회에서는 한번도 월남 학자를 만난 기억이 없었으니, 월남을 가게 되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科學」용어, 1874년 첫 사용

마침 우리 일행을 안내도 해 준 그 곳 유학생 가운데 내게 과학사를 배운 외대 월남어과 졸업생이 있었다. 그에게 부탁하여 급히 구해 얻은 책 몇 가지 가운데에는 이런 제목의 것이 있었다. 「과후 기획 쭉 릭수 벳남」(Khoa hoc-ky thuat trong lich su Viet nam)이란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아마 「월남 역사에서의 과학과 기술」 정도가 되는 듯하다. 짐작컨대 이 월남 제목은 한자로 표기하자면 「科學技術從歷史越南」이 되는 듯하다. 월남에는 원래 그들 자신의 문자가 없었다. 자연히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다가 사용 했고, 그 나라 단어의 대부분이 한자 어라고 한다. 우리 옛날의 이두(吏讀)와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던 ‘쯔놈’이란 이 한자 사용 방식은 이제 다 잊

혀져 버렸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 월남 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개발해 낸 것이 지금 월남문자가 되어 버렸다. 월남 사람들은 모두 이 로마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자를 아는 월남인은 거의 없다.

이 책의 첫 단어가 바로 우리가 쓰는 ‘과학’을 말한 것에 나는 놀란 것이다. 그 전부터 과학이란 말이 원래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한국과 중국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던 일이다. 하지만 월남에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보다 먼저 들어왔다. 당연히 과학도 먼저 알려졌을 터인데, 왜 월남 사람들 조차 일본인들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가설은 있지만 아직 뭐라고 확언할 자신은 없다.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으니, ‘과학’의 발명자 서주로 돌아가자. 서주는 1829년 2월 12일 쓰와노(津和野) 번(藩)(현재 島根縣: 시마네 껌)에서 그 곳 영주(藩主)의 전의(典醫) 서시의(西時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모리(森) 집안에서 서(西)씨 집으로 양자간 사람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출생한 유명한 소설가 삼구외(森歐外: 모리 오가이)와 서주(西周)는 친척이기도 하다. 어려서 이름은 게이타로(經



과학(科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 사상가요 철학자인 서주(西周/1829~1897년)이다. 서주는 1874년(명치 7년) 「명록잡지」에 연재하던 ‘지설’(知說)이란 글에서 과학(科學)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그후 기술(技術), 예술(藝術), 철학(哲學)이란 용어도 그가 만든 용어이다.

太郎), 일찍이 서양 학문(洋學)에 뜻을 두어 고향을 떠나 그 지역의 서양 책 번역소(蕃書調所)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 온 것은 1862년 6월 막부(幕府)의 명령에 따라 서주는 화란 유학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란의 라이덴대학에서 그는 휘셀링 교수 아래 법률, 경제, 철학 등을 공부하고 1865년 귀국— 바로 동경의 개성소(開成所) 교수가 되었다. 당시 개성소란 개화를 위한 정부기관이었던 셈인데, 1877년에 이 기관은 동경대학(東京大學)이 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 변신하게 된다. 또 그는 명치유신 직전에는 제15대 장군(將軍: 쇼군) 경희(慶喜)의 정치 고문으로 일하며 번역서인 「만국공보(萬國公報)」를 가지고 국제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또한 장군의 명에 따라 「의제 복고(議題腹稿)」란 것을 준비했는데, 이는 일종의 헌법 초안(憲法草案)이었다. 또 명치유신 이후에는 근대식 군제(軍制)의 정비에도 관여했고, 원로원(元老院) 의관, 귀족원(貴族院) 의원을 지낸 일도 있다.

이렇게 열핏 보기에 상당히 정치적 역할도 한 것 같지만, 그가 일본 역사에서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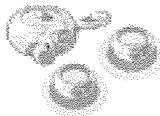
학자로서 또는 계몽사상가로서의 위치다. 특히 그는 일본 아니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도 한 근대식 용어를 아주 많이 만들어 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 ‘과학’ ‘기술’ ‘철학’ 등은 모두 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선 ‘과학’이란 말의 이력서를 살펴 보자. 앞에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니시 아마네(西周)가 이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은 1874년(明治 7) 그가 「명록잡지(明六雜誌)」에 연재하던 ‘지설’(知說)이란 글에서 “소위 과학. . . ”이라면서 이 단어를 도입한 것이었다.

기술·藝術·哲學 용어도

그러면 다른 중요한 단어는 어떤 뜻에서 그가 그렇게 만들었던가? 몇 가지 재미있는 아주 대중적인 단어만 예로 들어 보자. 기술(技術)이란 말도 그가 처음 만들었는데, 영어(mechanical art)로 ‘기계의 기술’이란 뜻으로 보아 그리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술(藝術) 또한 그의 단어인데, 영어(liberal art) ‘고급 재주’란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만들었다. 철학(哲學) 또한 그의 발명 용어인데, ‘회합 철인(哲人)의 학(學)’이란 뜻에서 만든 단어다.

어디 그 뿐인가? 그가 처음 만든 단어는 지금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에서 아주 널리 사용하는 어휘가 되어 있다. 학술(學術)이란 말도 science and art를 그가 뜯긴 것이고, 그 밖에도 대표적인 경우로 주관(主觀), 객관(客觀), 본능(本能), 개념(概念), 관념(觀念), 귀납(歸納), 연역(演繹), 명제(命題), 긍정(肯定), 부정(否定), 이성(理性), 오성(悟性), 현상(現象), 지각(知覺), 감각(感覺), 종합(綜合), 분해(分解) . . . 끝이 없을 지경이다.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는 불현듯이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하고 반문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인이 만든 단어까지 버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학술 일반을 모두 마비시키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될 듯하여 두렵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서주는 일본 근대 사상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물로 높이 추앙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개화기라 할 수 있는 명치유신(明治維新·1868년) 전후에 일본 지식층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앞에도 잠깐 소개한 「명록잡지」란 바로 1873년(明治 6)에 창간된



역사 속 과학인 물

교양잡지인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명류사(明六社)의 기관지라 할 수 있다.

명류사는 미국에서 돌아온 삼유례(森有禮: 모리 아리노리)의 집에서 그 해 9월 1일 가등홍지(加藤弘之), 중촌 정직(中村正直), 진전진도(津田眞道), 기작추평(箕作秋坪), 서촌무수(西村茂樹) 등이 모여 시작했고, 여기에 당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복택유길(福澤諭吉) 등도 가세했다.(이들 가운데 여럿은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깊은데, 특히 복택은 김옥균의 후원자였고, 윤치호, 유길준 등 많은 개화기 한국 지식층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한달에 2회 강연회를 열어 서로 강연

하고 토론했으며, 그 내용이 잡지에 실렸다. 이 잡지는 2년 뒤인 1875년 11월 제4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지만, 당시 일본 지식인에게 남긴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이들은 처음으로 서양에 유학했거나 서양 문명에 크게 감동하여 그것을 섭취하자고 주장하며 나선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과격한 주장도 많아서, 일본말을 없애고 영어를 사용하자거나, 서양 여자와 결혼하여 일본인의 작은 키를 키우자는 등의 엉뚱한 주장도 크게 논란이 될 지경이었다. 바로 이런 주장 가운데 로마자를 채택하자는 주장은 바로 서주도 1874년 3월 들고 나서서 논쟁에

들어간 일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그룹의 서촌(西村茂樹)은 반대였다.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학, 공학, 과학, 기술을 비롯하여 문학, 철학, 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웬만한 학술 용어가 모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동아시아에 보급된 것이다. 고향이 같은 일본의 대표적 소설가 삼구외(森鷗外=모리 오가이 1862~1922년)와 함께 그의 고향에서는 크게 칭송되어 그의 옛집도 보존되고 있다. 동경학사원(東京學士院) 회장, 동경고등사범(京高等師範學校) 초대 교장을 지내기도 한 서주는 1897년 1월 31일 작고했다. ST

과학 만평



그림 : 崔民